



'2022 자전거 타기 Green 자전거 축제' 참가자들이 안전운행과 완주를 다짐하며 힘차게 페달을 밟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황금빛 갈대 물결 속 가족·친구 함께 신바람 라이딩

동호인·친구 등 400여명 참가
45km '사랑'·25km '행복' 코스
영산강 승촌보·풍영정 풍광 만끽
초대가수 하숙자 등 축하공연도

자전거 동호인들이 '2022 자전거 타기 Green 자전거 축제'를 만끽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열린 이 대회에서 자전거 동호인들은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늦가을 공기를 호흡했다.

'2022 자전거 타기 Green 자전거 축제'가 13일 오전 9시30분 광주시 서구 벽진동 영산강자전거길안내센터 일원에서 열렸다.

광주일보사와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광주본부가 주최하고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광주본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 자전거 동호인, 가족, 친구 등 400여명이 참가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 라이더들이 손꼽는 자전거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전거를 타면서 건강을 지키고 환경보호의 중요성도 일깨우는 대회다.

순위를 가리는 여는 대회와 달리 '화합과 안전'을 슬로건으로 건 자전거 퍼레이드라는 점도 주목 받고 있다.

이날 행사는 광주시 서구 영산강자전거길안내센터(극락교)에서 출발해 서창교-흥어1번지-영산대교-승촌보를 지나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사랑코스' (45km)와 영산강자전거길안내센터에서 출발, 서창교-승촌보-승촌보안내센터(반환)-서창교를 돌아오는 '행복코스' (25km)로 나뉘어 열렸다.

이들은 대회 코스를 달리며 영산강의 절경으로 꼽히는 승촌보, 풍영정, 만귀정의 풍광을 즐겼다.

취미로 자전거를 즐기는 라이더는 물론 초심자, 여성, 세대를 아우른 가족들이 다수 참가해 자전거를 즐겼다.

아들 지담(12)군과 함께 행사에 참가한 윤남



호(44)씨는 "아들이 곧잘 자전거를 타기에 새 자전거를 선물했다"면서 "그린 자전거 축제 코스를 달리면서 아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은 선두에서 참가자들을 이끌고 안전사고에 대비했다.

축제에 앞서 다채로운 행사도 열렸다. 초대가수 하숙자와 KJN댄스팀이 무대에 올라 공연했다.

행사 주최측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코로나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지켜 대회를 치렀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에 만전을 기했다.

문세훈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광주본부장은 "Green 자전거축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할 필요가 없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라이딩을 마치는 게 중요한 행사"라며 "서로 배려하면서 자전거 축제를 즐기자"고 당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가족 참가자가 아이를 태운 채 영산강 자전거길을 달리고 있다(위). 식전 공연에서 가수 하숙자가 무대에 올라 흥을 돋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고교 선·후배 사이인 백금석(맨 오른쪽), 송기종(오른쪽에서 두번째)씨가 부인과 함께 안전한 라이딩을 다짐하고 있다.

“부부 금슬에 자전거 만한 취미 없죠”

부부 참가자 백금석·김영순씨

후배 소개로 자전거 취미 불이며 전국 유명 자전거 길 대부분 섭렵

“부부의 취미가 같다면 싸움 일이 없어요.” 백금석(65)·김영순(64) 부부는 13일 광주일보사가 주최한 '2022 자전거 타기 Green 자전거 축제'에서 자전거는 '금슬'이라고 손꼽았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행사에 참가한 이들 부부는 원래 산을 즐겨 찾았다고 한다. 국내 유명산은 물론 해외 원정도 다녀온 정도.

하지만 코로나 19 때문에 힘들어지자 자전거를 함께 타기 시작했다. 삼천강, 수도권 자전거길 등 전국 유명 자전거길을 대부분 달렸다.

백씨는 “자전거를 타다보니 이전 걷는 게 심심해졌다”면서 “길 아래를 조망하며 고지대를 달릴

때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강변을 달리는 그런 자전거 축제길도 매력적인 코스"라고 말했다.

백씨의 아내 김씨는 “영산강 자전거길이 좀 더 자전거 친화적으로 정비되고 조성됐으면 좋겠다”며 “부부의 사랑을 지키는 데는 자전거 만한 취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에게 자전거를 소개한 송기종(65), 최용에(64) 부부도 참가해 함께 라이딩을 즐겼다.

송씨는 백씨의 광주공고 후배다. 고교 졸업 후 각자 경상도에서 근무하다 광주에서 재회했다.

송씨는 “자전거는 자투리 시간에도 탈 수 있다는 매력에 10년전부터 타기 시작했다”면서 “직장에서 취미로 자전거를 탔는데, 폐활량을 강화하는 등 장점이 너무 많아 백 선배에게 소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전거로 폐활량을 늘인 덕분에 전국 어느 산에 가더라도 숨이 차올라 산행을 멈추는 일은 없다”며 웃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